

제4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9. 24 (화), 14:00 ~ 17: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김호섭 의장, 이순일 부의장, 나상신 평의원, 윤성승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이강준 평의원, 이효철 평의원, 임정민 평의원, 정승민 평의원, 간사 김승권
총 13명 중 9명 참석 (불참: 강희진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4. 의안

- 심의사항 : 학칙 개정(안)
- 지문사항 : 2013학년도 병원회계 1차 추경(안)
- 논의 사항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 캠퍼스 플라자 및 (주) 대복 관련
- 보고 사항 :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5. 회의결과

가. 심의사항

- 아래의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함.

[주요 개정내용]

- 제8조(대학원) : 일반대학원에 문화콘텐츠학과 및 의약생명정보시스템협동과정 신설

* 상세내용은 10차 교무회의 결과 참조

< 간서명 란 >

의



나. 자문사항 - 병원회계 추정 (안)

○ 연차수당과 제수당 절감 관련

1) 질의사항 : 2013 병원회계 추정(안) 중 연차수당과 제수당 절감을 통한 10억 원 인건비 절감의 근거를 질의함.

2) 보고사항

-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인건비 절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무시간에 일의 집중도를 높여 업무 연장에 따른 근로 수당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를 통해 약 3억여원 정도를 절감할 예정임.

예) 행정부서 야근 줄이기 등

- 간호부서와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 등의 연차 사용률을 두 배 정도 늘리고 이를 통해 7억여원 정도를 절감할 계획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휴가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 인력운영의 효율화, 업무 효율화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예) 환자 수에 따른 융통적 병동 통합,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대한 트레이닝 방법 개선을 통해 현재 3개월 전에 선발, 운용하는 방법에서 2개월 전에 선발하는 방법 등 검토

- 당초에 노동조합의 우려도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수당 절감 방안 및 참여에 대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기로 서로 이해하고 있음.

3) 자문사항

- 수입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은 이해가 되나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함.
- 의료진과 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자문함.

○ 진료 재료 비율 관련

1) 질의사항 : 진료 재료 비율 절감 노력(35.7%→33.5%) 수치의 근거를 질의함.

< 간서명 란 >

의 장



2) 보고사항

- 진료 재료비의 경우 대학병원 전체 평균이 32% 수준인데 비해 본원은 36% 수준임. 본원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진료 재료 사용의 자율성 부여로 한 품목에 다양한 종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음. 진료재료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재료의 종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임. 재료별 종류를 줄여 대량 구매로 가격을 절감하는 방안 진행 예정임.

예) 소염제 종류 조정, 수술 세트 간소화로 소독 및 세팅 비용 절감, 거즈나 주사기 등의 종류 통폐합을 통해 가격 절감 등

- 진료재료비 감소분 중 100억은 의료수익 감소, 84억은 재료비 절감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줄여야 함. 진료 손익은 현재 입원 외래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원가체계를 만들어서 입원, 외래 등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3) 자문사항

- 의료 수입 조절 감소분, 재료비 절감 감소분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 필요함. 입원, 외래, 건강검진 등으로 나눠 재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필요함.
-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되기를 당부함.

○ 권역외상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 사업 관련

- 1) 질의사항 : 권역외상센터 설립 및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와 관련한 상세 사업내용 및 국고 지원금 등 재원 마련 방안, 앞으로의 수치 분석 등에 대해 질의함.

2) 보고사항

-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장례식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 예정임. 공사 기간은 오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설계 작업이 진행 중임. 총 417억 원의 공사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고지원금 80억 원, 경기도 지원 200억 원, 자체 부담 137억 원으로 재원 마련 예정임. 올해 사용될 금액 59억 원을 현재 추경에 반영하였음.
-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는 구 휘트니스센터 자리에 마련 예정이며, 기존 26병상에서 10개 병상을 더 만들어 36병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총 소요예산은 23억 원으로 국고지원금 15억 원, 본교 부담 8억 원임.
-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 건립에 도의 지원이 어려우면 도내 기업체 후원금을 통해서라도 지원 예정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일부 경기도 지원, 일부 기업체 후원금 지원 등으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간서명 란 >

의 장



- 경기도에서는 2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중환자실 20bed, 일반실 40bed 규모를 늘려 중환자실 40bed, 일반실 60bed 규모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타 대학 병원 설립 규모의 3배 정도임. 경기도는 본 권역외상센터를 통해 경기도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35%에서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요청함. 또 공공의료에 대한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아주대 병원은 위치적 핸디캡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통해 아주대학교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진료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당장의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예정보다 건축 규모를 줄일 경우 토지 활용 및 투자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운영의 묘를 살려 나중에 한 개 층 정도는 암이나 심장 특화병동이나 VIP병동 등 일반 병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 권역외상센터 운영비는 매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자문사항

- 권역외상센터 경기도 지원금 200억 원 지원 문제는 대외 적인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또 만약 지원의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병원이 돈만 벌기 위한 것은 아니겠으나, 권역외상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 순이익이 전부 마이너스인 점은 주의를 요함. 결과적으로 수익 측면에서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오늘 회의에서 보고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브랜드 이미지 제고 측면,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 권역외상센터를 통한 병원의 위상 강화 등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건설비용의 재원 마련이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장례식장 신축 추진 상황

- 1) 질의사항 : 장례식장 신축 추진 상황 및 권역외상센터 신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함.
- 2) 보고사항
 - 장례식장은 파워플랜트 동쪽 후면 임야에 신축할 예정임. 지하 2층 지상 3층 약 1천8백

< 간서명 란 >

의 장



평 규모로 오는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완공 예정이며, 현재 빈소 7개 수준에서 12개로 늘릴 계획임.

- 장례식장 건립비용 약 113억 원 전액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투자 후 운영 이익금은 의료원과 학교가 적절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함. 법인에서는 큰돈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 창출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계획을 당부함. 이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들의 고급화된 장례식장 수준으로 건립하여 수원 인근에서 가장 고급화된 장례식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장례식장 신축 전에 가설 건물건립을 통한 운영도 검토했으나 건축허가, 투자 소요자금 과다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병원의 공간 조정을 통해 장례식장을 운영, 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3) 자문사항

- 권역외상센터 설립 및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하여 장례식장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함.
- 학교의 전입금 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므로 현재 건립비용 및 운영 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 기타 질의사항

Q. 전산실 용역비(인건비)가 23억여 원 활용되고 있는데 업무 부담이 그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함.

A. 병원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음. 전산용역업체에서는 현재 1년 치 업무가 요청되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함. 운영의 효율성 부분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으나 추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Q. 교비운영비 지원 14.64억 원의 증액에 대해 질의함.

A. 지난해에 수익 감소로 전출하지 못했던 의과대 운영비 일부를 전출함.

Q. 수입 감소 추이에 대한 타 병원과의 비교 자료를 요청함.

A. 상급 종합병원은 1분기에 약 2.1% 감소됨. 우리 병원은 상반기 0.2% 정도 줄어듦. 다른 대학보다는 양호한 편임.

< 간서명란 >

의 장



Q. 수입 감소 증감 상황을 외래와 입원, 건진으로 나눠 보면 건진의 경우 26.7%로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데 이 이유가 작년대비 올해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았기 때문인지 질의함.

A. 건진센터의 경우 작년보다 인원이 다소 늘기는 했음. 그러나 올해 웰빙센터 건립으로 건진센터 면적을 두 배 확장시키면서 성장 목표를 상향시켰고 현재는 목표 대비 8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목표에 미달하고 있음. 현재 건진센터 차원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의료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진센터 마케팅 TF를 행정부원장이 맡아 운영기로 함. 앞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기업 건진 유치, 시설 일부 조정 (VIP룸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Q. 의료수익 현황표를 보면 단가조절에 의한 증감률은 마이너스 평균 2%이나 전체수익의 감소율은 평균 마이너스 7%로 불가피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수입 감소 보다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병원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함.

A. 법인으로부터도 웰빙센터 투자 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현재 웰빙센터는 일부 외래 진료실의 이동과 교수 연구실 이동이 주로 이루어짐. 환자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좀 더 넓고 쾌적하게 운영함으로써 환자가 더 많이 찾아 수익이 좀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 웰빙센터 건립 후 매출 증가는 건진센터 부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케팅 TF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코자 함.

Q.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홍보비용을 또 줄이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적이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질의함. 아주대 병원의 이미지 제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질의함.

A. 홍보예산의 경우 필요할 때는 예산 조정을 통하여 편성, 운영할 것임. 의사의 진료의 질과 환자들의 진료 및 가격 만족도 병원의 수익성 등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임. 홍보의 중요성과 이미지 제고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음.

Q. 외부 환경 변화 중 인근 신도시에 생긴 대학병원으로 인한 타격을 질의함.

A. 현재 동탄에 새로 생긴 H대 병원은 750병상인데 400병상 운영 중으로 알고 있음. 동탄 2기 신도시가 들어서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동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특성으로 본원의 소아과와 응급실은 다소 영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큰 영향은 없음.

< 간서명란 >

의 장



Q. 기업체 건진 유치와 관련하여 인근 대기업이 동탄에 위치해 있는데 동탄에 새로 생긴 병원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 질의함.

A. 인근 대기업의 경우 강북에 위치한 계열 병원의 영통 건진센터에서 건진을 실시하고 있음. 조만간 흥덕 지구에 대형 건진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 일부는 아주대 병원으로 유치는 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함.

다. 논의 사항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사항

1) 질의사항 :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관련한 대책 및 환수 방안에 대해 질의함.

2) 보고사항

- 교육부는 회수 등 보전 대책을 강구하면서 가능하면 수혜자들에게 기부를 받거나 해서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금액이 적은 대학의 경우는 그런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연세대나 계명대, 우리 대학 같은 경우 100억 이상의 대학은 그렇게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교육부에서는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41억 원 뿐 아니라 병원도 학교의 부속병원이므로 병원회계를 포함하여 192억 원 전체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교육부도 우리 대학의 경우 교비회계가 아닌 병원회계에서 지출됨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타 대학에 비해 약한 경고 처분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 10년 동안 집행된 금액이 192억 원이며 현재 퇴직자 해당분 약 50억 원, 기존 인력 해당분 142억 원 수준임. 환수 하는 것은 세금 부담 등의 문제가 큼. 따라서 기부 모금을 통하여 보전 계획을 제출하고자 함. 병원 회계에서 나간 금액은 병원회계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는 병원회계의 문제로 학교를 징계하는 모순도 있음. 병원 회계, 교비회계 합하여 학교 전체로 보고 기부금을 걷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중임. 또 보전기간을 약 5년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교육부는 각 학교의 대책이 9월 30일까지 접수되면 보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하면서 보완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임. 위원회 심의 후 기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안은 고민하고 있음. (부속병원 행정부원장 보고사항)
- 교육부에서는 교직원 개인 기부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임. 퇴직자 건은

< 간서명 란 >

의 장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함. 현재는 의료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 쪽에서도 교육부에 다녀온 내용 등을 보고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 타 대학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H대, D대, G대 등은 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함. D대는 9월 급여에서 반영했다는 이야기도 들림. (기획팀장 보고)

3) 자문사항

- 192억 원은 병원회계까지 합친 것인데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41억 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의 엄밀성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교육부의 얘기만 듣고 192억 원으로 처리하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192억 전체에 대해 보전하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법인으로 진출하는 돈도 모두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 모순이 있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제출해야 하는 환수안의 처리 결과가 본교의 국고 지원금 삭감 여부에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9월30일까지 1차 안을 제출한다 해서, 그 뒤에 융통성 있는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국고 지원금 50% 삭감 조치가 내려지면 BK21 플러스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학생들의 장학금 경우에는 교비로 우선 지급하고 교육부와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국고 지원금 삭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교육부가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우리 상황이 다른 대학과 다르며 액수 산정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자문함.
- 행정부원장의 답변은 의료원의 입장이고 총장이름으로 제출이 되는 것이니 학교는 답변을 어떻게 낼 것이고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함.
- 이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문제임을 지적함. 환수 방안의 교육부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대학 차원의 정리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함. 안이한 자세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교육부로부터 국고 지원금 삭감 조치를 당하면 큰 손해라는 점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는 환수 방안의 내용을 평의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간서명 란 >

의 장



○ 캠퍼스 플라자 및 (주) 대복 관련 사항

1) 질의사항 : 캠퍼스 플라자 전대 및 (주) 대복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보에 게재된 내용 등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함.

2) 보고 및 자문사항

- 학보사 측에서 총무팀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총무팀은 협상과정 중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함. 이에 학보사 기사는 (주)대복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학보에 실린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함.
- 어제 저녁에 총무처장이 평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주) 대복이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추후 보고 예정이라고 구두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 평의회 의장은 총무처장에게 평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함. 총무처장이 평의회 전에 아래와 같은 간단한 메모만을 전달해 왔기에, 추후 공식 문서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함.

캠퍼스플라자 및 (주)대복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었으나 현재 학교는 (주)대복과의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평의회 의장께 설명을 드렸으며, 학교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해당 처장이 협상 중간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대학평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기존의 진행 사항에 대해 구두로 얘기를 듣기는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어려움. 총무처장과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추후 관련 사항이 완료되고 처장의 공식적인 보고 내용을 듣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 사안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면서 교내 구성원들보다 외부 위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적절한 해결 후 보고를 요청함.
- 관리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의 수익 (보증금 & 임대료)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캠퍼스플라자 전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어떤 손실을 가져왔는지 수지 측면에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2014년 예산 수립에는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

< 간서명 란 >

의 장



○ 기타 사항

- 평의원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전체 텍스트를 모두 녹취하는 기존 방식과 상세 요약 형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 논의함.
- 많은 사람들이 회의록을 읽어볼 수 있도록 상세 요약 형식의 회의록을 작성, 공지하기로 함. 기존 녹음 파일은 계속 남겨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 녹취 방식의 회의록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대비기로 함.
-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학칙개정(안), 평의원회 회의록 등 주요한 사안은 좀 오래 게시될 수 있도록 공지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예결산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바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당부함. 대학평의원회 자문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거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연석회의를 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결산 심사·의결 권한을 부여한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장들이 과거처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교직원 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처장들은 예·결산(안)을 작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당사자이기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담당책임자로 참석하여 예·결산(안)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함. 이번 학기에 새로 구성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교직원 대표를 전면 재 검토하고, 특히 예·결산 심의가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대학평의원회나 교수회와 의견을 조율할 것을 요망함.

< 간서명 란 >

의 장



2013년 9월 24일

의 장	김호섭	(서명)
부의장	이순일	(서명)
평의원	나상신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정승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간 사	김승권	(서명)